

공주발전 토론자료

박 병 수 (공주시의회 부의장)

총괄 - 2030 공주비전 계획

■ 권역별 기본 구상

- 2008년 수립한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2008~2022)에 반영된 권역별 기본 구상
 - 역사문화개발권(우성, 동, 의당, 장기)
 - 전원관광개발권(탄천, 이인, 계룡, 반포)
 - 환경농업개발권(유구, 신평, 사곡, 정안)
 - 행복도시 주변권(반포, 의당, 장기 일부)
 - 2030 공주시 비전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기본구상
 - 역사문화개발권(우성, 동, 의당, 장기) ▶ 세계문화유산권
 - 전원관광개발권(탄천, 이인, 계룡, 반포) ▶ 생태관광개발권
 - 환경농업개발권(유구, 신평, 사곡, 정안) ▶ 창조융합개발권
 - 행복도시 주변권(반포, 의당, 장기 일부)
- ⇒ 세계유산 지정 등 외부여건에 맞고,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선상에서 비교적 잘 구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재원조달 계획

- 2030년까지 15년간 4조 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계획
 - 국비 3조 7629억원, 도비 2963억원, 시비 7487억원
(연간 평균 3,266억원 투입)
 - 산업경제 5470억원, 문화관광 1,837억원, 도시기반 3조 7344억원
교육복지 1570억원, 생태환경 3,664억

⇒ 연간 평균 3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공주시의 여건상 투자가 녹녹치 않은 것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와 투자방법의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우선사업을 먼저 결정해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분야 별로 우선 사업을 가리는 것과 중기, 단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계획의 연계성과 지속성

○ 정책의 방향은 집행기관장의 공약, 가치에 따라 변하며, 또한 공주시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짐. 특히, 집행기관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수립된 계획이 연계성과 지속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책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함.

필요하다면 향후 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고 계획범위내에서 보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① 공주의 비전과 발전 전략

■ 공주시 미래상인 도약하는 문화도시,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위한 목표를 글로벌 문화관광, 국토 중부내륙의 주민행복, 경쟁력있는 특화산업, 자연친화적 생태전원, 삶의 질이 충족되는 교육복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세계유산 지정 등 외부여건에 맞고,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선상에서 비교적 잘 구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문화관광 측면에서 문화관광, 역사문화, 생태자원 중심의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구상 시 사계절 접할 수 있는 공연, 쇼, 축제 등이 있는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원의 연계 및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연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주민행복 측면에서는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시세가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고, 또한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 1990년대초반 14만 명에서 2015년 12월 현재 111, 261명 임)
※ 노령화 지수 (65세이상 인구/15세 미만인구) : 1.76 으로 충남평균
1.09보다 높음

이러한 시기에 시민들을 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화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거리를 집중과 선택으로
그래도 우리시에서 자랑할 만한 음식인 칼국수 및 탕과 국의 거리 조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들의 역량강화로
밤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연친화적 생태 전원을 위하여는 중부지방의 자생식물 전시포와 연구소
설치 검토 및 자생식물 전시판매관 개설 계획 및 주말농장의 신개념을
추가 보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공주시 만의 특색있는 야생화 (예: 패랭이, 금낭화, 매발톱꽃 등)를
제민천 석축 사이에 식재 및 야생화 전시포 전시관 설립 검토
※ 금강 수계지역 사면 전체에 통일된 조경수 (개나리 등) 식재 검토
※ 클라인 가르텐 (작은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의 설치 분양 검토

■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를 위해서는 젊은 인력의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및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빵기술 습득, 피와 재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시설과 장소 마련) 으로 실제 숙련시키고, 숙련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일도 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농촌지역의 패러다임 변화 및 공주시 대응방안

- 농촌지역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친환경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매년 과거식으로 지원 대책 · 보완 대책만 반복적으로 내놓아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 산업적 측면에서 대규모 농가와 중 · 소농을 구분하여 생산, 유통, 시장, 경영체, 소비패턴별로 나눈 것은 소농 보호와 더불어 상업농 · 기업농에 대한 대책 등 이원화 전략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 대응방안으로
 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정책 2. 농촌마을의 재생정책
 3. 도농교류 및 귀농 · 귀촌 정책 4. 과소 · 고령마을 정책을제시되었는데 이중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정책 분야에 있어

주민, 행정, 전문가로 조직된 통합지원시스템과 주민 주도 희망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 주민 의견수렴, 합의를 통해 마을의 유 · 무형 자원과 역량을 진단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민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 실행을 주도할 리더 및 전문가그룹을 양성하며

맞춤형 마을 특성별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인센티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촌마을 재생정책 관련하여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14개소를 다시 평가분석 지정취소 내지는 운영가능성 있는 마을들 중 2~5개소를 선택 집중 육성하고, 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마을경영체로 육성·관리하여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 도농교류 및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하여

○ 차별화된 도농교류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부분에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산품, 음식, 캠핑, 힐링, 이벤트, 문화, 역사, 인물 등으로 농촌체험관광의 테마를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고 유산자원을 소재로 콘텐츠·스토리텔링·브랜드 등 개발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 친환경 먹거리 체험, 특산품 판매, 문화예술 체험 축제, 힐링 전원휴양 마을 등

○ 로컬푸드 운동 전개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부분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어떤 식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국민의 건강이 좌우되고, 농업·농촌·농민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꾸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구축 교육이 중요하며, 식재료의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수도권 학교급식, 군부대 급식과 연계하고, 공공급식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과소·고령마을 정책과 관련하여

○ 과소마을(인구 50명 이하)과 고령마을(65세 이상 인구 50% 이상)을 구분하여 실태조사 및 지속적 관리함에 있어 농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커지고 특히, 농업이 식품가공, 직거래, 체험관광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도시보다 소득이 적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살맛나는 농촌사회를 이룩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한 농촌에서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행복바우처(복지카드 발급)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2014년도 기준으로 공주시 농가인구는 11,394가구에 28,401명으로


이중 여성농업인 14,82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보면 노령화와 공동화로 인하여 젊은 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며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생들의 활용방안, 귀농·귀촌 등의 업무구상 및 마을공동체(마을 대동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2018 올해의 관광도시와 공주관광 발전구상

- 세계 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문화 유산**과 지구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유산**,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합한 **복합 유산**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시의 공산성과 무령왕릉 세계유산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 내에서 건축, 기념물 조각, 정원 및 조경 디자인, 관련 예술 또는 인간 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 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유산이며,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 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 건설 방식 또는 인간 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인 것입니다

- 따라서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세계 유산에 등재된 만큼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주 원도심 만이라도 도로, 환경 등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무령왕릉 전축을 활용한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하여 구시가지 전체가 백제의 향이 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 우리시 지역 진입 시 상징물을 무령왕 입구를 연상시키는 CI ()모형 건축과 성곽을 쌓는 계획을 검토하여 입구에 들어오면 백제의 시간여행이 느껴지도록 도시 환경과 도로를 점차 개선하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백제브랜드 실경공연은 주말 상설 공연장으로 운영하되 공산성을 무대로 공주시민이 실제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재주와 끼가 있는 대학생들의 공연 참여로 청년 일자리로 자리 매김하도록 제작과 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위해 주변 야경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공주관광 발전 구상 계획을 추진 시 타지자체와는 차별성이 있도록 공산성과 무령왕릉의 세계유산을 인용 보완하는 시책을 펼치되 집중과 선택으로 유일무이한 관광시설물 설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에 주력한다면 관광도시로의 일보 도약하여 함께하는 행복공주는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